

제5차 「도농녹색교류연구회 토론회」 개최

9월 13일(화) 오후 6시 본 협회 2층 대강당에서 총 1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도농녹색교류연구회 포럼」이 열렸다. 서정원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의 “산촌진흥을 위한 산림복합경영(Agroforestry)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1시간 30분 가량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 주요 내용

○ 「산림복합경영」은 세계 각지에서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일종의 전통적인 토지이용 방식으로, 하나의 토지이용 단위 안에서 임목과 농작물 및 가축 등의 다양한 업종이 혼합되어진 토지이용 생산체계이다.

○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임업경영인에게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산림소득을 얻도록 하는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의 지향하는 목표를 단기소득 중심형 → 목재생산 중심형 → 복합 산지관리형으로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생태임업경영 방향으로 유도하고, 앞으로 생태임업 경영여건이 성숙되면 현재 단기소득 중심형의 개간성 경작임업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다.

■ 주제발표 토론내용

○ 산림을 통한 생산영역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자원의 교류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다. 대규모 산림농업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산림농가의 대다수인 소농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 관련 생활, 관광, 먹을거리, 볼거리, 쉼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장기적인 산촌의 발전방향은 관광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촌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행정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조직의 성장과 함께 1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관광과 휴양)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산림주의 세금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주식처럼 잘라서 팔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한 개발로 인해 산림이 많이 파괴될 것이 우려된다. 산림복합경영이 사전에 여가시설에 대한 도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정책적으로 앞서나간다면 고소득을 올리는 복합경영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주가 나무를 키워서 소득원으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 호주는 고래를 잡지 않고 생태관광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이 숲이 가진 다원적 기능, 친환경적 가치를 교육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도농녹색교류

○ 소농의 경우 관광은 대안이 되기 어려우므로 산림을 경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은 작은 규모의 산림은 묶어서 조합에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 같다.

○ 주 5일 근무제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의 주 5일 수업 또한 체험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며 지원해주는 방법 또한 다양해야 할 것이다.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법인이나 작목반에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이 좋으면 개인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사업과 지역사업이 잘 연계되어 대표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산림복합경영은 종합적인 소득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이용측면에서의 복합경영이 아니라 산림차원에서의 복합적 경영 이어야한다. 산촌이나 농촌이 같은 맥락에서 체험관광 등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산촌이 더 유익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법도 산촌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산촌, 농촌은 국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이다. 농민, 산주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경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산촌에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산림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자신이 낸 세금이 산림에 투자되는 것을 납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민모두가 한농원 갖기 운동을 통해, 가정에서 화분에 나무하나 가꾸는 것이 진정한 도농교류이고, 산림청의 성공비결이라고 생각한다.

※ 제6회 「도농녹색교류연구회 토론회」는 10월 11일(화) 오후 6시에 개최한다.



▲ 주제발표 : 서정원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참여회원 소개

포럼 관련 문의 : 박영선(도농녹색교류연구소 부소장, HP: 011-688-0397)